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1년
2022년 7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6년

제 272 호

세상의 빛으로 다시 오소서

7월 1일 효강 대종사 입적, 8월 18일 본산 총지사서 49재



7월1일 원적에 든 효강 대종사

“효강 대종사님이시여! 지금부터 유명한 훈미에서 깨어나 본식을 잘 수습하여 법신불의 무량광명에 의지하소서. 바라옵건데, 비로자나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로 이 영식을 애민하시어 이 영식에게 청정 안락한 열반의 자량을 내려주시옵고, 대비관자재보살님께서는 이 영식에게 자비광명의 등불을 비추시어 이 영식의 영로를 밝혀 숙세의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토록 가지호념하여 주옵소서!”

불교총지중 제9대부터 11대 종령과 5대와 9대 통리원장 등을 역임한 효강 대종사가 7월 1일 세수 96세, 법납 33세로 원적에 들었다. 3일 고결식과 추선 천도불공이 경북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종령 법공 예하를



3일 고결식이 경북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종령 법공 예하를 비롯해 전국 스승과 유가족,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엄수됐다.

비롯해 전국 스승과 유가족,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엄수되었으며, 다비 후 대종사는 선산인 밀양으로 모셔졌다.

장의위원장 우인 정사는 조사에서 “효강 대종사님이시여, 이렇게 훌륭히 우리 곁을 떠나시나이까! 우리 곁을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 미처 상상도 못하였는데, 황망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라고 애도하며, “한평생 오체투지의 마음으로 교화 일선에 온 마음을 바치신 대종사님의 헌신적인 모습은 언

제나 종단의 귀감이었습니다. 효강 대종사님의 한량없는 법은(法恩)을 오래오래 가슴에 새겨서 정진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세진(世塵) 속에서 헌신하시느라 고단했던 몸에서 벗어나시어, 피안(彼岸)의 저 밝음 속에서, 누리지 못하셨던 모든 복락을 길이길이 누리옵소서.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서방 아미타부처님께 효강 대종사님의 왕생극락을 비옵나이다”며 발원했다.

승단 대표로 추모사에 나선 법등 정사는 “평생을 수행으로 일관(一貫) 하였고, 부처님 법을 위해 행하여 오셨던 대종사님의 모습은 이제 저희들에게 영원한 사자후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자상한 얼굴로, 때로는 엄하게 꾸짖던 대종사님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생전의 모습은 영영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효강 대종사를 회고했다.

<관련 기사 2면, 5면>

하반기 49일 불공회향 종령 법어

‘방생(放生)’은 공생과 상생으로 이어지는 부처님의 자비행이다

종령 법공 대종사

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생(放生)’은 곧 ‘공생(共生)’이며 ‘상생(相生)’으로 이어지게 하는 부처님의 커다란 자비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방생은 수행을 통해 자신을 방생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한 해탈’이라는 자기 방생을 통하여 아집과 아상, 편견과 사된 욕심을 버림으로써 스스로를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법회는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해탈을 위한 법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49일 동안 퇴전함이 없이 용맹정진하여 주신 스승님과 교도님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호국일념과 조상들의 영령을 추복하고 유언, 무연중생의 영식천도를 위한 하반기 49일 불공은 이제 원만히 회향하여 여러분들의 공덕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 곳곳에서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수행정진 할 것, 서로 사이 좋게 화합할 것, 타인을 모욕하지 않고 존중할 것, 타인의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것’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볼 때 방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자각, 즉 수행으로 자신의 삶의 자유를 성취하고 더 나아가 못 중생들과 화합하고 존중하며, 행복을 주는 것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비의 구

이러한 자기 방생을 통해 전쟁과 코로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작금의 사회에 ‘희망을 싣듯게 해주고, 세상은 살만한 것이라고 일깨워 주고, 더불어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방생이고, 이러한 방생은 결국 공생과 상생으로 이어져 국가간 이기주의, 진보와 보수, 계층 간 양극화, 세대 간 갈등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커다란 방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진호국가불공 회향을 위한 호국안민기원대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각 사원 스승님들과 보살님, 각자님들의 정진원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들의 일체 소원이 성취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종/조/법/어

착한 인을 지으면 착한 과를 받고 악한 인을 지으면 악한 과를 받으며, 효순한 인을 지으면 효순한 과를 받게 된다.

=지 면 안 내

5면 열반 추선 기획특집 / 효강 대종사 행장과 업적
7면 창종 50주년 특집 / 총지중의 역사<4>
8면 밀교인물사 / 제6대 링린뽀체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해탈절 법회안내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짜 _ 총기 51년 7월 15일(금)

장소 _ 불교총지중 전국사원

참석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좌석배치 등 방역 조치 예정

불교총지중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1면에서 이어짐

법등 정사는 이어 “이제 저희들은 생전에 효강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받들어 불법수행에 매진하겠습니다. 인세인연이 다하여 그 몸을 바꾸시니, 가시는 길이 평안하시길 서방정토 부처님께 빌겠습니다. 한량없는 무생법락 길이길이 누리소서”라고 추모했다.

192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효강 대종사는 1985년 7월 20일 대법사를 승서 후 총지사 근무를 시작으로 불교총지종 종령, 통리원장 등을 역임하며, 불교방송이사, 불교텔레비전 개국 이사중단 및 대표이사에 취임

임하여 한국밀교와 한국불교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통리원장 재임 시 총지종보(현 총지신문)와 위드다르마를 창간해 문서포교를 시작했으며, ‘원정기념관’을 총지사 2층 옛 서원당 자리에 개관하여 종조선양 사업을 통한 흥포사업은 물론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내 동해사를 개설하고 정사를 교법사로 파견해 법당조성과 종교교사 파견이라는 업적을 남겼다. 또 한일불교대회, 한중일불교대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개최 등을 통한 국제포교에도 선지적인 해안으로 앞장서왔다. 49재는 오는 8월 18일 본산 총지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우승 종사 49재 포항 수인사에서 봉행 2일, 부처님 가지력으로 극락왕생 서원

불교총지종에서 평생 수행과 교화를 위해 정진하다 지난 5월 23일 세수 83세, 법납 35세로 원적에 든 우승 종사 49재가 지난 2일 포항 수인사에서 봉행됐다.

효강 대종사의 갑작스러운 입적 소식에도 종령 법공 예하를 비롯한 스승과 유가족

들이 참석하여, 세속에서 닦은 인연과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극락왕생하기를 서원했다. 우승 종사는 한결같은 진언행자로서 제14대 통리원장을 비롯한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하며,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밀교발전에 많은 이정표를 남겼다.

효강 대종사 수행이력

1927.01.30	경남 밀양 출생
1985.02	전법관정수계 대법사 품수 통리원 총지사 근무
1986.05	중앙교육원장 역임
1986.09	제5대 통리원장
1986.10	청정지 정사법계 품수
1989.07	중앙교육원과 총지사 근무
1991.01	일상사 주교 역임
1993.02	제9대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1993.10	불교총지종 종령 직무대행
1996.02	불교총지종 법장원장, 중앙교육원장 겸직 불교방송이사
1998.05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1999.12	Btn불교TV 대표이사
2004.05	제 9대 불교총지종 종령
2006.02	제10대 불교총지종 종령
2012.01	제11대 불교총지종 종령
2022.07.01	입적

제196회 원의회 통리원에서 개최 인사처리 내규 및 종무원 복무 규정 개정

제196회 원의회가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통리원에서 개최됐다. 인사처리 내규 및 종무원 복무 규정 개정의 건이 상정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서강대 종교학과 대학원생 총지종 방문 창종 정신, 밀교 수행 등 화령 정사와 대담



서강대 종교학과 김재영 교수 및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9명이 지난 6월 21일 총지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9년 화령 정사(철학박사, 법천사 주교)가 서강대 종교학과가 주관한 국제종교학회 세미나에서 총지종을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성사되었다. 당시 화령 정사는 총지종의 탄생 배경

과 합리적인 조직 및 운영체계, 생활불교의 실천 등을 소개하며 종단에 대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총지종이 밀교를 수행 종지로 삼은 이력은 물론 시대에 맞는 생활불교의 실천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단 운영에 대해 종교학회 회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록경 총무부장의 안내로 종조전 참배와

서원당을 방문하고, 이후 반야실에서 화령 정사와 3시간이 넘는 대담을 가졌다. 화령 정사는 종단 소개와 종조 원정 대성사의 창종 정신에 대해 설명했으며, 불교 교리 전반에 대한 소개를 했다.

특히 방문자들은 밀교의 수행 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화령 정사는 진언 공덕 체험담과 함께 진언 수행의 과학적 원리를 통해 천주교, 기독교 등 타 종교를 배경으로 가진 종교학과 학생들의 공감을 얻으며, 밀교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또 신부와 목사, 신흥종교 성직자 등 다양한 종교군이 포함된 종교학과 대학원생들 중 일부 참가자는 총지종에 대한 학술 논문도 써 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자리에서 화령 정사는 종교간 화합을 강조하며, “세계에서 종교적 갈등이 가장 적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모든 종교가 타 종교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총지종을 방문하신 분들이 장차 종교계의 큰 인재가 되어 종교평화운동에 앞장 서 주기를 기대한다”며 마무리 했다.

한편 서강대 측에서는 2020년부터 종단 방문을 타진해 왔으나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다가 2년 만에 이뤄졌다.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옐터)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옐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편보리수 108염주

₩ 40,000



총지종 참여 한국밀교학회 첫 학술대회

‘불교학·밀교학 발전 위한 마중물 되길’

한국밀교학회 첫 학술대회가 6월 16일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지난 4월 진각종 회당학회에서 한국밀교학회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지종과 더불어 한국 밀교의 양대 종단 중 하나인 진각종 창교절을 기념하기 위해 밀교학을 되돌아보고 탐구하는 시간으로 계획됐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와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가 나란히 자문위원에 자리했으며, 양종단 스승을 비롯해 한국밀교

학회장 효명, 고문 서윤길, 백도수 한국불교학회장, 권기현 동아시아문화불교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진각종 전라교구청장 범경 정사의 ‘진각종의 교리형성과 소의경전’, 위덕대 교수 성제 정사의 ‘보리심론의 전래와 유통’이 발표됐다. 또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 부원장이 ‘대승장엄보왕경의 사상 연구’에 대해 발표했으며, 진각대 김치은 교수의 ‘금강정경계 경전의 전래와 유통’, 위덕대 정성준 연구교수의 ‘공양



차제법소의 현신성도 소재 고찰’이 발표됐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총지종이 한국밀교학회 일원으로

동참하는 첫 번째 학술대회”라며 “한국밀교학회가 불교학·밀교학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한국·베트남 불교 문화교류 성료

종단협, 수교 30주년 기념 우호 증진 도모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불교지도자들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불교계와 우호증진을 도모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는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3박 5일 간의 일정으로 한국불교지도자 베트남불교문화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8회 차를 맞이

한 이번 행사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조계종,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등 20개 종단에서 18명의 원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불교지도자들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하남성을 비롯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롱베이, 베트남 국보 1호 일주사 등을 순례했으며, 특히 2019년 베사데이(유엔이 지정해 해마다 부처님오신날 열리



는 세계 최대 불교 축제) 개최지인 팜쑁사원(Tam Chuc)을 찾아 베트남 불교계와 환담을 나눴다.

또 6월20일 박노완 주 베트

남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의 초청으로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양국 불교문화순례 등 관계 증진을 위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내마음의 등불

밀인사 보현 전수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홀로 행하며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닷가재처럼, 진흙에 더럽혀 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숫타니파타〉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밀인사 보현 전수님은 지홍 전수님을 지목하셨습니다.

불교의 재구성

지혜의 눈

21세기 용어로 불교의 재해석 ‘신드롬’
과학과 융합, 새로운 불교 재탄생 기대

불교는 그 시작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변화를 하였습니다. 인도에서는 크게 유식학과 중관학이 성립하여 교리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의 만남이라는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의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불교의 전래는 중국 문명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상의 흐름을 일으켰고 중국의 사상에 새로운 깊이를 더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중국의 유교는 지배층에게 통치의 논리를 제공하였고 피지배층을 교화 내지 통제 대상으로 보았다면 불교는 바로 그 피지배층을 위한 종교로서 새로운 복음(福音)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불교는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널리 유행하였습니다. 한글이 창제되면서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불경을 언해하여 보급하였지만 유학자들에 의해 불교가 억압받으면서 한글 불경의 보급은 맥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전개된 세계사적 사건은 다름 아닌 과학의 발달이었습니다. 18세기 과학혁명이라고 명명될 정도로 본격적인 과학의 발전은 20세기에 들어서 가속화되었고 특히 인간과 우주의 기원과 관련된 물리학과 생물학의 발전은 경이로울 정도로 합니다. 인간과 우주의 기원은 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의 한 분야이지만 더 이상 종교적인 설명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불교는 이런 현상에서 오히려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역학이 불교를 새롭게 이해하는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떠한 종교이든 그 발생에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의 언어로 항상 새롭게 재구성 되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대 이후 특히 과학과의 경쟁에서 점차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생물학으로 진화론이 등장하고 창조론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쇠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계시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

교는 과학의 언어로 재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뜻밖에 과학과의 친연성이 두드러지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일정한 성취를 이루었지만 불교와 관련이 없는 이들이 어느날 갑자기 불교를 들고 등장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박문호라는 과학자였는데 특히 뇌과학과 관련한 일련의 저서를 내면서 불교방송에서 강연을 통해 현대 과학과 불교의 접목을 시도하였습니다. 덕분에 불교신자들에게 그 어렵다는 뇌과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거리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강신주는 수많은 베스트셀러 저자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선불교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의외인 사람이 바로 이진경입니다. 1980년대 사회구성체론을 들고나와 학생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 사람으로 이진경은 이 때 사용한 필명으로 현재도 본명을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불교를 철학하라는 책을 출간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교방송에서 철학이 묻고 불교가 답하더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21세기의 용어로 재해석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불교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시작한 중국의 불전한역(佛典漢譯)이나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이후 시도한 불경언해(佛經諺解)와는 약간 다르지만 동시대(同時代)의 언어로 불교를 다시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기원전후에 인도에서 일어났던 대승운동과 그 결과물로서의 중관학과 유식사상이 탄생한 것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과학과 불교의 융합은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불교로의 재탄생을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이 불교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단의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고무적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사원誌

정성으로 일군 도량 <최종회>

계율과 수행으로 이룬 총지 공동체



본산 총지사 서원당

종단은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계율로 삼지 않고 해야 할 일을 계행으로 삼았다. 모두가 기분을 지켰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했다. 스승들은 교도들을 위해 마음 다해 뛰어다녔다. 농촌 마을이나 소도시에서 자리해 교동이 불편한 사원은 지금도 자성일이면 승합차를 운행하고 스승들은 운전기사를 자

임했다. 교도들을 태우러 가는 시간부터 이미 불공이 시작되었다고 여겼다. 부처님 법을 믿고부터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교도들을 보는 것을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으로 삼았다. 스승의 손에서는 염주가 떨어지는 적이 없었다. 교도들 또한 자성일과 월초불공을 지키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옴마니반메흠

염송을 놓치지 않았다. 가정해탈을 위해 단 일주일만 빠지지 않고 정진해도 허물이 보이고 참회가 되었다. 자신의 성품을 찾는 자성일을 지키며 주변이 밝아지고 마음 본성이 환해졌다. 생활 속에서 명명백백하게 증명이 되고 서원을 이루니 불공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도가 즐겁지 않을 수 없었다. 부처님일은 법계와 부처님이 다 알아서 이루게 해준다는 진리를 수행과 교화의 과정에서 모두가 확인했다. 서로에 대한 신뢰는 절로 깊어졌다. 스승과 교도가 같이 배우고 함께 수행하여 깨쳐가는 승속동수의 길. 스승들은 안내자라는 생각으로, 교도들은 종단과 사원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흔쾌히 나섰다. 정통밀교의 큰 서원으로 나란히 걸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사찰에 비하면 역사도 짧고 규모도 작지만 진실한 교화의지와 뜨거운 염송정진으로 도량을 일궜다. 현세정화 즉신성불의 진언 공동체는 인과법과 회사법을 배우고 자비와 화합으로 다져졌다. 스승과 교도들은 금강합장의 두 손을 놓지 않았다.

《총지사원 변천사》

	최초 개설일	선교부	서원당	사원
1	1972.08.27	상봉 서울선교부	응신서원당	정심사
2	11.24	충정로선교부	육합서원당	관성사
3	11.25	유천선교부	응불서원당	일상사
4	11.27	불국선교부	법등서원당	승천사
5	11.28	동대문선교부		밀인사
6	12.02	안강선교부		건화사
7	12.12	경주선교부		국광사
8	12.27	부산선교부	총지서원당	정각사
9	12.28	포항선교부		수인사
10	12.29	청주선교부	해탈서원당	해정사
11	1973.01.10	의창선교부		선립사
12	01.16	대전선교부	관음서원당	만보사
13	03.19	대구선교부	원경서원당	개천사
14	03.26	성북선교부		실지사
15	05.16	밀양선교부		밀행사
16	06.01	현곡선교부		수계사
17	08.31	전주선교부	훈정서원당	흥국사
18	12.02	부평선교부	입정서원당	지인사
19	12.27	부광선교부	이화서원당	성화사
20	1974.07.25	서면선교부	홍포서원당	관음사
21	1976.03.16		유가서원당	자석사
22	06.25		법장서원당	백월사
23	12.02		광혜서원당	운천사
24	1977.12.27			총지사
25	1978.02.01		자재서원당	법성사
26	03.03		일광서원당	벽룡사
27	06.22		정경서원당	실보사
28	1980.10.28		복혜서원당	제석사
29	1980.12.19		시복서원당	법천사
30	1981.09.25			삼밀사
31	1982.05.28			덕화사
32	1983.11.16		원덕서원당	법황사
33	1985.04.09		인덕서원당	단음사
34	1985.04.10		선지서원당	화음사
35	1988.09.29		상락서원당	단향사
36	1992.10.28		정혜서원당	시법사
37	2016.10.25		괴산수련원	중원사
38	2016.11.19			동해사



대전 만보사 특락전



부산 정각사 서원당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종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열반추선 기획 특집

효강 대종사 행장과 업적

“인간사가 다 만나면 헤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총지종의 큰 스승 효강 대종사께서 세연을 다하시고 지난 7월 1일 열반적정의 세계로 먼저 떠나셨다. 효강 대종사님께서서는 종단 입교 후 오직 중생제도와 종단발전에만 매진하셨던 큰 스승이셨다. 지난 2018년 33년간의 통리원 생활을 마치며 “인간사가 다 만나면 헤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다. 유훈이 된 큰 스승님의 인과의 법은 모든 사부대중에게 영원한 사자후가 될 것이다. 부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편집자 주



2018년도 1월 29일 종조 원정 대성사 111주년 탄신대재 효강 대종사

입교와 초대 중앙교육원장

종단은 1985년 2월 22일 총지종의 사상과 교의를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법장원 내에 밀교연구소를 개설했다. 당시 효강 대종사는 포교사에 위촉되면서 연구소 내 상임연구위원으로 승서된 것이 종단 소임과의 첫 인연이다. 1940년대 서울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아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대종사는 밀교연구소에서 대성사의 가르침과 총지종의 수행법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는데 충분한 인재로 신망이 높았다.

1986년 중앙교육원이 설립되는데 효강 대종사가 초대 교육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대종사는 시무교육부터 스승교육, 스승 보수교육, 강공회의 커리큘럼과 강사 등 승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관리에 집중했다. 밀교사상과 밀교관법을 중심으로 하되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불교 사상과 리더십, 경영실무 등으로 교육내용을 넓혀갔다.

제5대 통리원장 그리고 교세확대

효강 대종사는 1986년 9월 제5대 통리원장에 취임한다. 당시 종단의 교세는 들불같이 번져나갔다. 통리원장 시절 밀인사 신축현공불사, 혜정사 현공불사, 선지서원당을 화음사로 개칭 이설, 만보사, 지인사, 운천사 신축부지 매입, 실지사 이전, 충북 괴산 수련관 착공 등이 연이어 진행됐다. 여름학생 수련법회, 경로수련법회, 전국합창경연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종단의 육영사업을 중등학교로 이어갔다. 학교법인 대동학원을 설립한 후 1989년 3월 4일 1대 이사장에 종령 특목 대종사, 이사에 효강 대종사가 올랐다. 동해중학교(현 학교법인 관음학사)는 현재 모범적인 불교종립학교이자 명문사학으로서 내실 있게 성장해오고 있다.

법장원과 밀교연구소 확대 개편

경전 연구와 불서 발간을 총괄하는 법장원과 밀교연구소를 1995년 2월 18일 확대개편하는데 있어 효강 대종사가 법장원장으로 임명됐다. 대종사는 종단 연구원들과 함께 동국대학교 서운길 교수를 지도교수

로 위촉하고 동국대학교 등에서 유식학, 정토학, 비교종교학 등 석·박사 전문연구인력을 대거 영입했다. 총지종의 창종과 발전에 사상적 기반을 구축한 원정 대성사의 사상과 가르침을 재조명하여 대종에게 알리고 나아가 밀교사상의 역사적, 교리적 근간을 확고히 하고 대중화하고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대종사는 육군 제51사단 호국달마사와 자매결연을 통해 불교종전 370권, 종조법설집 450권, 불사법요집 200권, 염주 100개 등을 기증하고, 정기법회에 참여하여 삼밀의괘법을 전수하는 등 군포교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확대했다.

불교TV 설립과 효강 대표이사 취임

종단은 1994년 불교계 종합유선방송 텔레비전 설립 준비 단계부터 발기인과 이사, 포교위원 등 주요 소임을 맡아 설립 준비의 전 과정에 힘을 보탰다. 이사로서 설립 초기부터 영상포교에 큰 힘을 실어준 종단은 1999년 11월 법장원장이던 효강 대종사가 대표이사로 선출되어 개국 이후 봉착한 운영상의 어려움과 난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이사종단으로서 BBS불교방송과 불교텔레비전 BTN의 설립과 운영에 앞장서 참여함으로써 방송을 통한 밀교포교의 영역을 개척하고 총지종을 선양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제9대 통리원장, 세계속의 불교로

종단은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에 종교계

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108개 나라와 33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산업, 경제, 과학기술, 학술, 문화 관련 전시회에서 총지종은 밀교수행법을 선보이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 일원으로서 세계불교계와의 교류에 나서 종단의 위상과 가치를 세계에 알렸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한 제3회 한중일 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는 대종사가 법장원장으로서 한국불교를 대표해 연설을 통해 삼국의 불교 대표기구가 공식화, 전문화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한일불교대회, 한중일불교대회, 국제제가불교지도자대회 등을 통한 국제포교에 앞장섰다.

생활불교, 사회공헌으로 회향

1996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효강 법장원장이 맡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 보호시책을 건의하고, 시장 및 상품 정보, 소비자 교육 및 계몽, 소비자불만 및 피해 해결을 위한 상담과 정보제공, 소비자보호에 대한 제도와 법률의 연구 조사 활동을 전개했다.

또 IMF 외환위기로 생계의 위협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종단은 1999년 5월 29일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을 창립하며, 효강 법장원장을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해 역삼제가노인복지센터, 강남은빛축제 등 노인복지사업에 공을 들였으며, 2001년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하며, 사회복지사업이 불교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기틀을 제공했다.

종조 선양, 원정기념관 개관

2004년 12월 2일 원정기념관 개관불사를 봉행했다. 대종사는(제9대 종령) “원정 대성사께서 뿌리신 정통밀교의 씨앗을 잘 가꾸어 이 땅에 윤원대도의 만다라가 활짝 피어나게 할 것이며, 승직자는 창종 초기의 열화와 같은 교화정신을 살리고 교도들은 초발심의 정진력으로 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2007년 1월 29일 총지사 종조 탄신 100주년 기념법회에서는 대종사는(제10대 종령) “종조탄신 100주년을 계기로 우리는 종조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을 개발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한 번 밀교종흥의 가치를 드높여야 하며 이것이 원정 대성사의 유훈을 참되게 기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원 기자



종령 재임 시 2004년 12월 2일 총지사 2층에 원정기념관을 개관했다.



1987년 제1회 전국불교합창단경연대회 기념사진



1995년 10월 24일 제46회 추계강공 개강식 및 총지종보 창간기념법회



BTN불교TV 개국 리셉션에서 이사 대표로 발언 중인 효강 정사

새로운 종풍운동의 전개로 중생제도와 교화에 앞장

제11대 효강 종령은 2010년 말 추계강공회에서 스승들을 향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삼밀관행 수행으로 거듭나 승단과 교도를 위한 마음으로 생활불교를 널리 알릴 것을 요청했다. 종령 임기 마지막까지도 승단을 결속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스승상을 정립하고 중생제도와 교화에 열성을 다하기 위해 5개항의 새로운 종풍운동을 전개했다.

- ① 뼈를 깎는 듯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여 삼밀관행(三密觀行)을 실천하자.
- ② 부처님의 재산인 정재를 아끼고 철저히 관리하자.
- ③ 부처님의 가르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하자.
- ④ 생활불교를 널리 홍보하며 실천하자.
- ⑤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을 바치자.



중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9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중 창중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1924년 대구에 중등교육기관인 교남학교(嶠南學敎)가 문을 열었다. 애국지사 홍주일 등이 대구 남산동에 학교를 연 것이다. 학교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상도 일원에서 600여 명의 학생들이 몰렸다. 대부분 일본 학교를 다니지 않은 강골의 학생들이었다. 교풍은 당연히 반일 민족주의의 색채가 짙었다. 당시 대구에 유일한 민족 학교였기에 제대로 된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교남학교의 전신은 민족주의의 강습을 하던 우현서루와 그 맥을 이은 교남학원, 후신은 지금의 대구 대륜고등학교이다. 1921년 9월 우현서루 한 편에서 교남학원으로 문을 열었고, 대구교남학교가 된 것은 1924년 5월 21일의 일이다. ‘교남’은 문경새재 남쪽, 옛 경상도를 일컫는 이름이다. 대성사는 1924년 5월 대구 교남학교 고등과에 진학했다.



부부로서, 도반으로서 한평생을 함께 보낸 원정 대성사와 금강관 전수 젊은 시절

당시 대성사의 정신적 태도를 보여주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학생들이 모두 신식 교복을 입을 때 대성사만이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마음속 민족의식을 잃지 않은 기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남산동 대구 교남학교는 사립일본어학교를 인수하여 문을 열었다. 단층 벽돌 건물을 교사로 쓰고 당시 기준으로는 제법 교육환경이 좋았으며 선생님들에 대한 평판도 좋은 편이었다.

지금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남학교 고등부의 교육과정은 4년. 교과는 수신과 조선어, 한문, 수학 등이 필수였고 상업과 이과



1936년 5월 23일 함양공립농업실수학교 재직 중 함양군 교육기념회. 맨 뒷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가 대성사

민족의식을 잃지 않는 기개로 대구 교남학교 고등과에 진학 정해진 시간 외 눕지 않고 밥은 늘 일곱 숟가락을 넘지 않아

들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고등부를 졸업하면 대학이나 사범학교를 진학할 수 있었다. 당시는 보통학교 졸업으로 학업을 마치는 일이 대부분인 터라 고등부를 졸업한 이들은 고학력의 지식인 대우를 받았다. 당시 대성사의 집안 형편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처지가 되지 못했다. 졸업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세상으로 나아가 일을 해야 할 처지였다. 1927년 대구 교남학교를 졸업한 대성사는 그해 6월 17일 금요일, 음력 5월 18일 정묘년 병오월 임오일에 혼례를 치른다. 대성사의 나이 21세 때의 일이다. 신부는 진주 강씨 집안의 강숙이(姜淑伊), 불명은 금강관(金剛觀)으로 양가는 대성사 가족이 만주에 있을 때부터 집안끼리 혼담이 오고 갔으나 부친의 육고와 여러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하였고 결국 수년이 지난 후에 기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변에서는 천생연분이라는 덕담이 이어졌다. 혼례는 처가 마당에서 전통예법에 따라 행해졌다. 강숙이의 집은 대성사의 집에서 길을 따라 북쪽 밀양읍 방면으로 걸어 한 시간 남짓 떨어진 상남면 평촌리. 상남면은 경남에서 손꼽히는 양잠마을로, 금강관은 어려

서부터 누에를 치고 비단을 짜며 옷을 만드는 일을 배워 가사를 돕고 집안일을 도왔다. 그 시절 여인들의 보통의 삶처럼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혼례를 치르면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기르며 집안의 화목과 번성을 이루는 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다. 신랑 신부는 그날 처음 얼굴을 보고 절을 함으로써 부부가 되었다. 신부집에서 초례를 치르고 신랑 신부는 말과 가마를 타고 백산리 집으로 돌아왔다. 백산리에서 상례대로 시부모와 시조모를 2년 동안 모시고 시집살이를 한 후 분가하였다. 분가한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으니 백훈(白薰) 손순표이다.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일 중 하나이다. 자신을 닮은 아들을 보면서 대성사는 그가 살아야 할 세상을 생각했을 것이다. 보다 자유롭게 평화로운 세상. 그런 시대를 열어주고 싶은 열망을 가슴에 지녔을 것이다. 대성사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 단지 생활과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가정을 꾸려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된다. 다행히 금강관의 내조가 있어 세상을 향한 항해는 큰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

금강관은 평소 남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성품이고,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다. 묵연히 대성사를 소리 없이 지켰는데, 몇 가지 사실에서 성품을 짐작할 수 있다. 대성사를 기억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특징이 있다. 언제나 입고 먹는 일을 절제하고 정갈히 한 점이다. 끼니는 간단한 찬 몇 가지의 소박한 상차림에 밥은 늘 일곱 숟가락을 넘지 않았다. 넘치게 먹지 않았다. 인간 육신을 지배하는 욕망 중 식욕과 수면욕은 겉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강렬한 징표이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눕지 않았고 때가 되어 끼니를 들 때면 과식하거나 먹을 것을 탐닉하지 않았다. 일체 간식을 찾지 않았을 뿐 아니라 때가 아니면 먹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늘 의복을 정갈히 갖추어 입었는데, 이는 금강관의 원력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도 철마다 새로 옷을 지어 누구 앞에 서더라도 당당한 위용을 보이도록 했다. 어린 시절부터 옷을 짓고 안 살림을 살피는 일이 몸과 마음에 배인 덕이다. 의관은 겉으로 드러난 격식이라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면 또한 허투루 하지 않았다. 여름이면 덥지 않도록

록 삼베며 모시옷을 지어 풀을 먹고 다림질을 하여 대성사가 경전을 읊거나 원고를 쓸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다. 겨울이면 솜을 넣은 누비옷을 지어 육신을 따듯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결혼할 당시 양복 한 벌이 소 한 마리 값이 나갔다고 하는데, 교직에 있을 때 늘 철에 맞춘 양복으로 기품을 잃지 않았다. 고급 옷이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나, 언제나 흐트러지지 않는 의복으로 세상에 모습을 보인 데는 금강관의 보이지 않는 내조가 있었다.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일가를 이끌어야 할 시기에 세상은 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는다. 1931년 일제에 의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만주 땅엔 괴뢰국 만주국이 세워졌다. 이런 혼란스런 시기에 1936년 5월 대성사는 경남 함양군의 학교비 위원회 서기로 취임하게 된다. 맡은 일은 군 전체의 교육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교육 관리비 담당. 오늘날의 교육위원회 예산집행관에 해당하는 역할이다. 주로 함양공립농업실수학교(咸陽公立農業實修學敎, 약칭 함양농업학교)의 예산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함양농업학교는 현재 함양중학교의 전신이다. 함양농업학교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모습으로 혁신적인 학교였다. 기와를 올린 한옥 양식의 2층 교사를 갖추고 있었고, 현대식 교과과정을 충실히 갖춘 실력과 학교였다. 대성사는 이곳의 예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간혹 학생을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잇는 내륙의 오지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걸쳐 있다. 논보다는 밭이 많고 보리가 주요 농작물이었는데 당시 함양농업학교는 경작법을 개량하여 많게는 4배의 수확량을 늘려 큰 주목을 받고 있었다. 교육 서기 생활은 비교적 평탄했고 나름 보람도 있는 일자리였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즐겁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 내일의 인재를 키우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이었다. 가정은 평화롭고 아들은 잘 자라고 있었지만 세상은 평화롭게 유지되지 않았다. 특히 대륙의 정세는 점점 불안해졌다.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요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요일	9시 30분 ~ 14시
점심시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완전무결한 정통밀교종단’ 총지종 구현에 경전 연구 총력

총지종의 역사

01. 전사 : 정통밀교종단의 발아 대원력으로 이룩한 역경 불사④

원정 대성사는 ‘밀교적인’ 총지종이 아니라 ‘완전무결한 정통밀교종단’ 총지종을 구현하고자 경전 연구에 총력을 쏟았다. 교도들을 맞이하고 전국 곳곳에 선교부를 개설하여 법문을 하는 틈틈이 경전 번역에 매달렸다. 당시로서는 밀교 경전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복사기도 없던 시절이라 국립도서관과 서울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전을 일일이 공책에 적고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와 인화한 다음, 우리말로 번역했다.

“방 하나가 한두 평 남짓할 정도로 좁았습니다. 경전을 번역할 때면 작은 책상을 놓고 쪽박이 앉아 경을 보고 글을 옮겼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한 줄이 남았더라도 바로 그치고 책을 덮어 다음에 정해진 일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치밀하고 철저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치밀함이 몸에 배어 매사가 시계 바늘 같았다고 기억한다. (총지종보,

2019년 9월 1일, 종조멸도절 특별기획 ‘지성정사, 김동운 각자 인터뷰, 종조 원정 대성사를 기억함’ 중에서)

1964년 출범한 동국역경원이 당대 최고의 학승과 불교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고려대장경의 한글 번역을 추진한 것과 비교하면, 대성사 혼자 힘으로 대장경의 주요 내용을 발췌, 정리하고 당시 이름조차 생소한 밀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았다.

하여 누구나 간편하게 주제별로 읽고 이해할 수 있어 스승들에게는 교화에 필요한 교리서로, 교도들에게는 수행의 지침서로, 초심자에게는 불교 입문의 길잡이로 활용되었다. 당시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불교 서적이 많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불교총전』은 포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였다.

경전의 우리말 번역에 각고의 노력을 이어온 대성사는 1977년 5월 22일 총지종의 소의경전인 『불설대승장엄보왕경』 전4권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전10권의 한글 번역을 완성했다. 진각종 총인 시절 이미 『밀교성전』을 직접 편수했던 대성사는 두 경전의 내용을 다시 번역하고 검수하여 『밀교장경』으로 출간했다. 오로지 밀교경전만을 묶어서 ‘밀교의 대장경’이라는 독창적이면서도 독보적인 이름으로 탄생시



1972년 12월 28일 포항 선교부 설단불사

전국 곳곳에 선교부 개설해 법문하고 경전 번역에 전념 대장경 주요내용 발췌·정리…밀교경전 한글 번역 보급

원정 대성사는 이미 창종 직전인 1972년 10월 17일 종단의 비밀의궤 불사법요에 진호국가불사의궤, 반야심경, 천지팔양신주경, 천수경, 선교부 설단불사식순 등을 추가하여 <총지교전>을 발간, 유인물 형태로 보급했다. 이를 토대로 수년에 걸쳐 연구와 번역, 그리고 설법을 병행했다. <총지교전> 가운데 비밀의궤는 이후 <불사식순>, <불사법요>로 간행되었고, 경전은 증보하여 『불교총전』과 『밀교장경』으로 나누어 간행되었다.

대성사는 불교의 가르침을 쉽게 전하기 위해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경전 내용을 주제별로 가려 뽑은 작은 유인물을 배포하여 법을 설했다. 이때 설법의 기초 자료로 삼았던 내용들을 한 데 모아 1975년 12월 24일 현교와 밀교, 대승과 소승의 모든 경전을 통불교적으로 편찬한 『불교총전』을 간행했다. 목차와 내용이 일목요연

킨 것이다. 『밀교장경』은 삼밀수행을 하는 이유와 각종 의궤 및 법식에 대한 경전 근거를 확실히 세움으로써 밀교 수행의 혼란을 바로잡는 초석이 되었다. 이는 모두 이 땅에 총지종의 바른 법을 세우고자 하는 대원력으로 이룩한 역경불사였다.

최초의 총지 서원당

이제 막 개발도상국에 들어서기 시작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도시로 몰려왔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몸을 누일 곳은 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때에 불교를 올릴만한 장소를 마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원정 대성사의 뜻을 함께 펼치겠다는 바람 하나로 땀땀 땀 땀 스승과 교도들은 자신의 집을 서원당으로 내놓거나 셋방을 겨우 얻어 본존을 모셨다.

총지종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칠 교화도

량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열기 시작했다. 상봉동에서 처음 교화를 시작한 지 2주 만인 1972년 9월 13일 심인각 보살이 서울 종로구 행촌동의 주택을 무상으로 보시하여 11월 24일 총정로선교부(주교 복지화 전수)의 설단불사가 봉행되었다. 서울 사대문 안 중심지에 총지종의 포교 전초기지가 세워졌다. 심인각 보살은 이후 사설서원당 설치를 건의하고 스승을 자임하다 탈종을 선언하여 종단에서는 건물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액 반환했다. 복지화 전수와 대다수 교도가 일심으로 정진하여 1973년 3월 26일 서대문구 송월동으로 이전, 서대문선교부로 개칭하고 10월 20일 서대문구 북아현동으로 이전하여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했다. 1975년 육합서원당으로, 1980년 관성사로 개칭했다. 2005년 10월 17일 종로구 행촌동 26-17번지로 이전하여 신축하였고,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2017년 행촌동

5-33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음날인 11월 25일 밀양군 상동면 금산리 무애정 전수의 자택에 본존을 봉안하고 유천선교부(주교: 무애정 전수)에서의 교화를 시작했다. 이를 후인 11월 27일 경주시 구정리 청암 정사의 자택에 본존을 봉안하여 불국선교부(주교 청암 정사)를 개설했다.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고 확신에 찬 스승들이 솟구치는 신심과 포교 열정 하나로 자신의 집에서부터 교화에 들어갔다.

곧바로 11월 28일 서울 동대문의 상가아파트 한 채를 임차하여 동대문선교부(주교: 법장화 전수)가 문을 열었다. 12월 2일 경북 월성군 안강읍에 있는 교도의 집을 전세로 임대한 안강선교부(주교 자비혜 전수)가 개설되었고, 12월 12일 경주시 서부동 현수 정사의 자택에 경주선교부(주교: 현수 정사, 부주교: 해인행 전수)의 문을 열고 교도를 받았다.

비록 비좁고 어수선한 가정집 한켠에, 혹은 임시로 빌린 남의 집일지라도 이들의 진언염송 소리만은 우주 법계에 닿을 듯 퍼져갔다. 어깨가 맞닿고 무릎이 부딪히는 속에서 총지의 진리를 배우고 전한다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수행과 교화에 매진했다.



최초의 총지교전. 원정 대성사는 창종 직전 1972년 10월 17일 종단의 비밀의궤 불사법요에 진호국가불사의궤, 선교부 설단불사식순 등을 추가하여 『총지교전』을 발간했다.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초기밀교의 전개와 형성②

초기 밀교의 전시대를 제1기, 제2기, 제3기로 구분한다면, ‘제1기 초반 밀교’는 비불교적인 인도 고래의 주술이나 주문신앙에 뿌리를 둔 수호와 안녕을 목적으로 한 밀교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제1기의 경향으로 인해 일단 불교 교단에 주술적인 형태를 가진 밀교의 싹이 나타나면서 그 기세가 한층 더 나아간다. 제1기 중반에 접어든 4세기 중엽부터 후반에 걸쳐 <밀교계 다라니 경전>에서는 ③과 같은 염불과 다라니 염송을 중심으로 한 불상에 대한 공양법이 등장한다. 같은 경전 유본(類本)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④에도 밀교적 참회법 속에 벽화로 보이는 화상(画像)이 밀교 사상 처음 등장하고 화상이 다라니 염송과 공양법의 본존으로 설정된다.

다음 ⑤에 설파되는 다라니를 보면 4세기 후반 무렵 근본설일체유부 주변에 힌두교 여신을 숭배하는 이들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밀교계 관음경전에 처음 나오는 ⑤를 제작하면서 주문화(呪文化)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리고 같은 경전에서는 ⑥과 같은 관음계 경전의 제작을 점차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1기 중반의 밀교는 본존 공양법을 담은 염송법과 힌두교적 주문으로 채색된 밀교로 풀이된다.

제1기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5세기 전

반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위에서 설명한 공양법이 획기적인 전개를 했다는 점이다. 그 좋은 예가 <밀교계 다라니 경전>에 속하는 『무량문과마다라니경(無量門破魔陀羅尼經)』(①의 유본)이다. 같은 경전 공양법에는 팔야차(八夜叉)의 화상과 수법용(修法用) 토단만다라(土壇曼荼羅) 두 가지가 세트로 출현하는 등 밀교화의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밀교계 호주경전>에 속하는 ⑥이다. 같은 경전에도 불상을 앞에 둔 수법용 제천(諸天)·용왕(龍王)·귀신상(鬼神衆)의 칠중만다라(七重曼荼羅)가 만들어지고 공양과 염송행을 실천하는 의례가 나온다.

다라니와 주문이라는 두 계통의 밀교 경전군에 화상이나 불상을 본존으로 삼아 비록 수법용 토단이지만 ‘만다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더한 공양의례가 동시대에 출현하는 것은 밀교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이 만다라의 출현은 처음 나오는 『무량문과마다라니경(無量門破魔陀羅尼經)』에서 보듯이 화상을 모방하는 것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예배·공양·염송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수법단(修法壇)인 만다라의 작단법이 등장함으로써 존격에 대한 공양법의 양태가 바뀌는 것이다. 그것은 공양법 중에서 만다라를 만드는 데 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히 염송법 자체가 작단분(作壇分), 공양분(供養分), 염송분(念誦分)과 같은 일련

의 행(行)체계를 조직하여 의례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 화상과 만다라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염송법이야말로 밀교 사상 처음으로 인계(印契)를 사용하여 염송법의 의례를 조직한 제2기의 『모리만다라주경(牟梨曼陀羅呪經)』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5세기 전반의 종반시대야말로 맹아적인 초기의 밀교가 의례를 조직하여 새로운 차원의 밀교로 단번에 기울어져 가는 전환시대이다. 따라서 제1기 종반 밀교는 제존공양법을 삽입한 염송법에 처음으로 만다라가 등장해 의례화를 이룬 밀교라 할 수 있다.

제3기 시대 초기 밀교의 전개

다음으로 의례화를 이룬 제1기 종반의 밀교가 제2기로 옮겨가서 어떤 전개를 했는지를 설명할 때,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제2기 시대에 새로 제작된 밀교경전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어떤 밀교적 특색을 지닌 경전이 새롭게 제작되었는지, 그것이 명백해지면 2기 시대에 어떤 전개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모리만다라주경(牟梨曼陀羅呪經)』1권
- ② 『허공장보살문칠불다라니주경(虛空藏菩薩問七佛陀羅尼呪經)』1권
- ③ 『대방등대운경정우품제육십사(大方便等

- 等大雲經請雨品第六十四)』1권
- ④ 『대운경정우품제육십사(大雲經請雨品第六十四)』1권
- ⑤ 『대운륜청우경(大雲輪請雨經)』2권
- ⑥ 『불공견삭주경(不空羼索呪經)』1권
- ⑦ 『여래방편선교주경(如來方便善巧呪經)』1권
- ⑧ 『십이불명신주교량공덕제장멸죄경(十二佛名神呪按量功德除障滅罪經)』1권

위에서 열거한 제2기 시대에 속하는 <신출(新出)경전>을 보면, <밀교계 다라니 경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②도 등장하는데, 동경과 같은 수호를 목적으로 한 다라니 염송의 경전은 극히 적다. 대부분 불상, 화상, 만다라를 본존으로 하여 의례를 조

직한 것(①, ③~⑥)이 대세이므로, 이 시대 밀교 전개의 추세는 화상과 만다라 등 본존을 상정한 조직적인 의례 구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현저한 것이 ①이다. 같은 경전의 경우는, 제1기 시대에 볼 수 없었던, 밀교 사상 처음 나온 것이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근본주(根本呪, mūla mantra)·심주(心呪, hrdaya mantra)·수심주(隨心呪, upahrdaya mantra)와 같은 다라니의 삼종 형태, 삼존형식의 화상과 만다라, 화상의 다면다비화(多面多臂化), 회사(絵師), 인계(印契), 소박한 관정의례, 조직적인 공양법의례, 식재·증의·향복의 삼종호마법(三種護摩法), 보살행 사상에 근거한 힌두교 주법(呪法)의 승화 등을 들 수 있다.

제1기 초기 밀교 경전(3세기~5세기 중엽)

〈밀교계 다라니경전〉	〈밀교계 호주(護呪)경전〉
① 『무량문미밀지경(無量門微密持經)』1권	① 『대금색공작왕주경(大金色孔雀王呪經)』1권
② 『지구신주경(持句神呪經)』1권	② 『마나라단경(摩尼羅宣經)』1권
③ 『화적다라니신주경(華積陀羅尼神呪經)』1권	③ 『환사발타신주경(幻師毘陀神呪經)』1권
④ 『대방등다라니경(大方等陀羅尼經)』4권	④ 『단트라마유술경(檀特羅麻油述經)』1권
⑤ 『청관세음보살소복독해다라니주경(請觀世音菩薩消伏毒害陀羅尼呪經)』1권	⑤ 『관약왕약상이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1권
⑥ 『십일면관세음신주경(十一面觀世音神呪經)』1권	⑥ 『대길의신주경(大吉義神呪經)』4권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제6대 링린뽀체의 본명은 툽텐룽뚝남겔틴레(1903-1983)로 티벳불교사상 20세기 가장 위대한 스승의 한분으로 추앙받는다. 학식이 뛰어나 티벳불교의 전승을 남김없이 익혔으며, 1965년 제 97대 간덴티빠가 되어 티벳불교 겔룩빠를 20여년간 이끌었다. 이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지만 특히 제14대 달라이라마 펜진가초의 친교사로서 유명하였다. 최고의 고승에게 갑제용진(Kyabjé Yongzin)이라 일컬어 공경하는데, 우리 말로 ‘구족하신 귀의의 주존’ 정도가 된다.

제6대 링린뽀체는 1903년 라사에서 멀리 않은 끼쇼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은 차끄라상와라 본존의 거주지로 알려진 곳이었다. 당시 제13대 달라이라마였던 툽텐가초로부터 제5대 링린뽀체의 활불로 인정받았는데, 이때 티벳을 수호하는 많은 호법신중들에 의해 제6대 링린뽀체의 환생을 예견하

였다. 처음에는 라사 외곽의 갈빠수도원에 머물다가, 라사의 링람랑으로 옮겨와 8세까지 보냈다. 9살때 데뽕로젤링사원으로 옮겨 12살때부터 데뽕로젤링사원대학에서 공부하여 21세때 겔룩빠 티벳승려 최고학위인 게세하람빠가 되었다.

이후 규뽀밀교사원에서 모든 밀교경전을 수학했고, 이후 같은 사원의 주지이자 교수를 역임하였다. 제6대 링린뽀체를 이끌었던 스승들은 제13대 달라이라마를 비롯해, 파봉가린뽀체, 뵐두린뽀체, 당시 섭정이었던 따닥린뽀체, 캉살린뽀체, 그리고 초네라마

냈는데, 그 출신들은 티벳을 비롯해 인도, 유럽, 북미 출신 등이었다.

1968년에는 스위스 추리히에 세워진 초콜링사원에서 제14대 달라이라마와 다른 수석친교사인 티장린뽀체와 함께 조빙되어 관정식을 이끌었다. 이후 6개월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요청이 있는 곳마다 방문하여 서구사회에 티벳을 크게 알렸고, 1980년에는 유럽을 비롯해 미국도 방문하였다. 특히 뉴욕에서 최초 야만따가관정식을 거행하였다. 1983년 남인도 세라사원에서는 2,000명의 청중에게 3주간 『보리도

정을 쉽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생명들이 학대받을 때는 동정하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갑제용진 링린뽀체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6세 되던 해부터 가르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최고의 밀교경전강의와 수행을 지도하였는데, 제14대 달라이라마는 말하길, “처음에는 스승을 두려워했지만 마지막에는 가장 절친한 법우로서 친구가 되어주었다고 하였다.

제6대 링린뽀체는 티벳어를 읽고 쓰는 법부터 시작해 일상 기도법의 암기와 5대 논

대 달라이라마는 스승으로부터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하였다.

1954년 티벳이 나라를 잃기 전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공 북경을 방문했을 때 제6대 링린뽀체도 동행했고, 이후 1956년 인도방문 때도 동행하였다. 특히 인도방문은 석가모니보다 탄생 2,500주기를 기념하는 해였다.

제6대 링린뽀체는 세수 81세 되던 해 1983년 9월 다람살라에서 뇌출혈을 일으켜 투병 끝에 12월 25일 입적하였다. 입적 직후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해 무려 13일간 광명신의 상태로 유해 곁을 지켰다고 전하는데, 사망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에 변화나 부패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기적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제6대 링린뽀체의 시신은 등신불로 조성되어 다람살라의 개인사원에 모셔졌고, 생전에 주석하던 데뽕로젤링사원에 린뽀체의 치아사리를 모신 불탑을 조성하여 오늘에 이른다.



출처 “Lineage: Ling Rinpoche” Official Website of Ling Rinpoche. June 20, 2022. <https://www.lingrinpoche.info/lineage.php#6ling>

1903년 탄생해 제5대 링린뽀체의 활불로 인정 받아 29세부터 전법, 티벳·인도·유럽·북미 출신 제자 양성

린뽀체였다.

제6대 링린뽀체가 가르침을 시작한 것은 27세 되던 해 1930년, 남부티벳 퇴삼달게링사원에서 『보리도차레론』을 강의한 것이었다. 특히 링린뽀체는 야만따가 본존의 환생으로 여겨져 티벳본토와 서양 등 많은 곳에서 야만따가판트라 관정을 열었고, 관정식때마다 천 명이상의 제자들이 관정을 받는 성황이 계속되었다. 제 14대 달라이라마의 친교사가 되었고, 1959년 제14대달라이라마와 함께 인도로 망명하여 망명정부를 이끌었다. 평생을 통해 많은 제자를 길러

차레론』을 강의한 것을 비롯해 헤아릴 수 없는 강의와 법회, 관정을 이끌었다.

제6대 링린뽀체는 사려가 깊고 자비가 겸손한 인물이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자비의 원칙을 잃지 않고 신중하게 처신했지만, 결단력이 있어 명확한 방향을 지시하였다. 물욕이 없어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희귀한 불경이나 불상을 받으면 매우 기뻐했다.

달라이라마 14세는 스승에 대해 회고하길, “스승은 항상 삼가고 기뻐거나 슬픈 감

서(계율·구사·현관장림론·임중론·논리학)를 가르쳤고, 사미계를 비롯해 보살계, 밀교관정, 산스크리트 문법과 시문학도 공부하였다”라고 회상하였다. 이외 제6대 링린뽀체는 『보리도차레론』, 『갈라차끄라판트라』의 중요한 전승에 대해 공부토록 권장하였는데, 특히 링린뽀체는 『갈라차끄라판트라』의 전승을 수지하던 캉살지금강린뽀체 전승의 수석제자였다. 링린뽀체는 스승으로부터 관정을 받을 당시 말세에 『갈라차끄라판트라』가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제14

무진서원법회에서 ‘독도아리랑’ 콘서트까지 ‘회당문화 축제’ 울릉도 최대 축제로 자리매김



‘회당문화축제’가 지난 6월 28일, 29일 양일간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열렸다.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회당문화 축제’가 지난 6월 28일, 29일 양일간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에서 무진서원법회를 시작으로 개최됐다.

특히 이날 법회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7대 종단 대표가 처음으로 모두 참석했으며,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장, 김병수 울릉군수 등도 동참했다.

법회는 ‘독도아리랑’이라는 서원 아래 ‘다시 희망, 그리고 서원’이라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았으며,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다음날 곳은 날씨로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으로 장소가 변경돼 열린 ‘독도 아리랑 콘서트’는 인산인해를 이루며 2시간 여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공연에는 반짝이는 의상을 갖춰 입은 지역의 꿈나무 어린이집 5~6세반 원생들의 깜찍한 율동부터 미디어파사드 타악그룹 ‘좋은친구들’의 미디어 대북공연에 댄스크루 7명이 선율에 맞춰 강렬한 율동을 선보였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국악가수 권미희와 국가스텐 밴드가 공연장을 달궜다. 권미희 국악가수는 ‘배 띄워라’ ‘초혼’ ‘진포배기’에 이어 앵콜송인 ‘홀로아리랑’으로, 국가스텐 밴드는 ‘돌덩이’ ‘걱정말아요 그대’ ‘라젠카 세이브 어스’ 등의 노래로 관객을 압도했다.

진각종 총무부장 신혜 정사는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의 자랑거리가 됐다”며 “이런 취지에 맞춰 공연 레퍼토리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울릉문화원(원장 최수영)은 ‘울도 선경가’ 작곡 등 울릉문화 복원에 앞장선 진각종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울릉도=박재원 기자

석관실버복지센터, ‘60+재능나눔아카데미’ 2기 개강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가 성북구에서 주관하는 2022년 평생학습 특성과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지난 6월 23일 ‘60+재능나눔아카데미’ 2기 수업을 개강했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지난해 치매예방 지도자, 보드게임 지도자, 스마트폰 지도자 양성과정의 3개 지도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이번 공모에 재선정돼 2기를 개강했다.

나석원 센터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전문가로 양성된 어르신들의 경륜과 재능을 지역사회에 나누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수요처를 개발하고, 흥미로운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02-957-9923

지혜로운 사람은 바름과 의로움 반석 위에서 정도를 걷는다

우리 주변에 거대한 건물이 들어설 자리에 터파기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을 보게 된다. 땅을 깊게 파 놓은 것을 보면 서 우리는 그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의 깊이에 따라 얼마만큼의 높고 큰 건물이 들어설 것인지를 짐작을 하게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물을 세울 때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기초의 탄탄한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은 인간들이 오랜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면 어떤 건물이든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살이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기초가 튼실하지 못한 건축물들의 경우, 어느날 갑자기 무너지거나 일부 붕괴되어 무수한 인명을 앗아가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올바른 사상과 건전한 정신 위에 기초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부실한 기초 때문에 자신의 파멸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다주게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스스로 감당하고 지탱할 수 없는 능력임에도 그 부실한 기초위에 자신을 세우려고 애를 쓰려고 하니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지식이나 명예나 재물 등에 대한 탐욕 때문에 좌고우면(左顧右盼)할 겨를의 시간조차도 가지지 못해 일어나는 것이니 거듭 안타까워 이르는 말이다.

어떤 한 젊은이가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축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 젊은 건축기사에게 그 지방의 이름 있는 부호가 대저택을 하나 설계하고 지어줄 것을 요청했다.

설계에 따라 기초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하자 젊은이는 슬그머니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건축물 주인은 대단한 부호인데다 건축에는 문외한(門外漢)인지라 적당하게 눈가림만 하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청년 건축기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질이 떨어지는 재료로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외양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저택을 지었던 것이다.

마침내 저택은 완성이 되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청년 건축기사는 자랑이나 하듯이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하면서 건물의 열쇠를 주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열쇠를 젊은 건축기사에게 다시 되돌려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열쇠는 자네가 보관하게. 이 집은 자네 집일세. 난 진작부터 자네가 내 딸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네. 결혼 선물로 주는 것일세.”

이때 이 젊은 청년 건축기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 것이 아닌 것에는 불성실하고 형식적이며 외관만 화려하게 신경을 써서 짓게 되고 자신의 것이라면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해 짓는 사회라면 어떤 세상이 되겠는가?

성실하고 성의 있게 정직한 집을 짓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관만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짓느냐 둘 중의 어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아닐까 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어떤 시련이나 고난, 또는 역경이 닥쳐온다고 해도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 상황에 잘 견디면서 천년 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굳건한 기초를 지닌 나만의 저택을 짓고 싶지 않을까?

우리는 이와 같이 건축물을 짓는 마음처럼 각자의 마음속에 자신이 살아갈 삶의 철학과 동기 및 사상을 재무장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

바름과 의로움의 반석 위에서 정도(正道)를 걷는 가치관을 가지고 말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이자 바른 가치관이 아닐까 한다.

시인, 전 동해중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5월 21일 ~ 6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우인	5/23	10,000	동해사	법선	5/23	10,000	수인사	최민애	5/22	10,000	일원 어린이집	구미자	5/31	10,000
	보명심	6/14	10,000		송인근	6/20	10,000		양순이	5/22	10,000		연명구	6/13	10,000
기로서스	공덕성	5/23	20,000	만보사	강명순	6/17	10,000		최형지	5/22	10,000	정각사	탁상달	6/10	10,000
	상지화	5/23	10,000		정정희	5/30	5,000		김예선	5/23	10,000		안현수	6/12	10,000
	수증원	5/23	10,000	밀인사	보현	6/15	30,000		이미향	6/3	10,000	지인사	범우	6/12	10,000
	밀공정	5/23	10,000		이은별	6/14	10,000		자비심	6/4	10,000		인지심	6/12	10,000
	총지화	5/23	10,000	밀행사	행원심	6/14	10,000		최형분	6/7	10,000		유승태	6/12	10,000
	법수원	5/23	10,000		법천사	반야심	5/31	10,000	수인회	6/13	50,000	김미혜	6/12	10,000	
	선도원	5/23	10,000	법황사	박미경	5/25	10,000	법상	6/14	20,000	초록 어린이집	이지희	5/25	50,000	
	법지원	5/23	10,000		인선	6/14	10,000	무명씨	5/20	20,000		강해란	5/25	10,000	
	일성혜	5/23	10,000	벽룡사	정계월	6/14	10,000	박성호	5/24	10,000	총지사	김정환	6/2	10,000	
	사홍화	5/23	10,000		승원	5/23	10,000	이순옥	5/24	10,000		김진화	6/2	10,000	
	안주화	5/23	10,000	빛고을 어린이집	묘원화	5/23	10,000	이순옥	6/9	10,000		신성희	6/8	10,000	
	진일심	5/23	10,000		이민선	6/2	50,000	박성호	6/9	10,000		신현태	6/8	10,000	
	시각화	5/23	10,000	사원명 무기명	이태경	5/22	10,000	황성녀	5/31	10,000		백귀임	6/10	10,000	
	최상관	5/23	10,000		하명순	5/25	10,000	유승우	6/13	10,000	최영아	6/10	10,000		
	연등원	5/23	10,000		남영애	6/2	30,000	이도현	6/13	10,000	손경옥	6/16	10,000		
	자선화	5/23	10,000		최영미	6/10	50,000	이서현	6/13	10,000	박근진	6/1	10,000		
	승효제	5/23	10,000		박필남	6/16	10,000	이루나	6/13	10,000	김평석	6/13	10,000		
	단음사	해정	6/2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김용기	5/25	2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정우석	6/17	10,000	포레스타7 어린이집	최유정	5/26
장정숙		6/13	10,000	나석원		5/25	50,000	진금선		5/30	50,000	무명씨		5/31	10,000
신말심		6/13	20,000	오선혜		6/2	10,000	양지 어린이집	정동숙	5/27	50,000	강점이	6/8	10,000	
이진승		5/31	10,000	박금화		5/22	20,000	윤천사	해봉	6/10	20,000	박옥자	6/8	10,000	
덕화사	법상인	6/14	20,000	수인사	황갑선	5/22	20,000	일원 어린이집	하재희	5/25	50,000	힐스 어린이집	곽방은	6/10	50,000



불교의 지혜로 어려움을 건너자!

우리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다. 지난 봄은 오랜 가뭄과 큰 산불로 괴로웠는데, 여름의 경계에 서니 장맛비가 거세 이젠 홍수 걱정을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여 지구촌 인류가 고통 속에서 신음했는데, 좀 나아질만하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중국 갈등으로 에너지 공급에 혼란이 일어나 물가고에 시달린다.

우리네 인생은 참으로 고난과 시련의 윤회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삶은 고해(苦海)’라는 말씀이 실감나는 시절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해라는 진단과 더불어 괴로움의 바다에서 해탈하는 길도 제시하셨으니 역시 부처님이시다.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에는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 다섯 가지 쌓임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에서 건넌다”고 하셨다. 즉 고난과 시련을 받는 ‘나’라는 존재가 다섯 가지 쌓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것을 바로 보면, 고통 받는 나라는 실체가 없으니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도 지나간다는 가르침이다. 부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반야심경』의 가르침대로 오온이 공하다는 지혜를 밝혀 온갖 괴로움에서 지나가시길 바란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 조상들은 생활의 지혜로 실천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가 『반



야심경』의 가르침과 상통한다. 아무리 어려운 죽음의 경계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아날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돌아보면 당신 자신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처님이 생존하셨을 때 사촌 동생으로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된 제바달라(Devadatta)는 부처님이 교단을 이끄는 방침에 불만을 품은 무리와 함께 부처님을 시해하려 할 정도로 승가 공동체에 반역을 일으켰다. 부처님 자신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정견의 지혜와 평상심으로 잘 지나가 불교는 사방팔방으로 전파되었다.

불교의 지혜는 공동체도 밝힌다

현대 미국에서 참선의 지혜로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는 한 때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고통에 직면했다. 그렇지만 잡스는 그 고통스러운 경계에서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살길을 찾아 일하여 결국 애플에서 다시 CEO로 모셔갔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 들었다.

불교의 지혜는 사람 개개인에게

무한한 지혜를 밝혀주면서 공동체에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1997년 외환 부족으로 IMF경제 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서 그 위기를 수습하고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초고속 인터넷망과 지식정보사회의 인프라를 갖췄다. 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감염 예방 모바일시스템과 전염병 진단 장비를 조기 개발하여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지금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서울대학교 이근 석좌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고, 2020년경 구매력 평가 국민소득은 미국인 대비 72% 선이나 일본은 70% 밑으로 떨어져 저 식민지 경험의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였던 나라가 본국을 추월한 사례는 별로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21세기 들어 일본 국민들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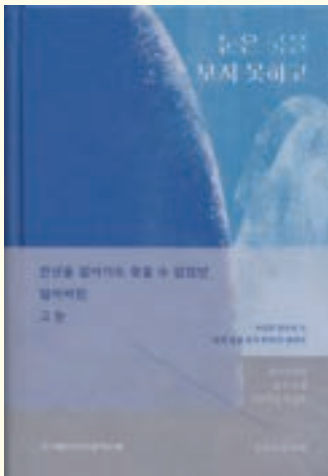
돌아보면 우리는 20세기 식민지 침탈, 분단, 전쟁, 군사독재의 역경 속에 굴하지 않고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이루었다.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BTS 노래와 한국 영화들은 어떤가? 참으로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불자들은 부디 역경 속에 머물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계속 나아가야 한다. 멈추지 말고 계속 가다 보면 반드시 지혜의 바다가 보일 것이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눈은 눈을 보지 못하고



저자 진각문학회 김상규 외 16명
판형 135*195mm 양장판 199쪽
출판사 도서출판진각중해인행
비매품

「눈은 눈을 보지 못하고」는 진각문학회(회장 김상규)에서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 탄생 120주년을 기념해 특집호(단행본)로 발간한 책이다. 회당 대종사의 발자취를 따라 시, 소설, 수필 등 문학작품 속에 다양하게 드러내고 등장시켰다.

이 책 「눈은 눈을 보지 못하고」는 수진주 전수의 회당 대종사 탄생 120주년 기념 시를 판 제목으로 ‘본연(本然)을 보자’는 자성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프롤로그를 통해 김상규 회장은 “글쓰기는 자기의 내면을 들추어내는 작업으로 참회하는 밀교의 본지와 유사하다고나 할까요. (중략) 한편 한편의 작품에 서려 있는 불심이 일체중생을 유익하게 하는 한 가닥 빛이 되어 온 누리에 번져나가기를 서원한다.”고 발간의 취지를 밝혔다.

늦은 저녁 눈물 젖은 빵과
여물지 않은 허기와
결핍을 쑤셔 넣으며
눈은 눈을 보지 못하고
귀는 귀로 듣지 못하고
몸은 마음을 넘지 못하고
가만가만 달팽이가 되어 갔다
천년을 걸어가도 찾을 수 없었던
잃어버린

그 눈

-눈은 눈을 보지 못하고 중-



불교서적 월간베스트(6/1~30)

순위	도서명	출판사	저자
1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김영사	백성옥/김원수 엮음
2	염불정도에 왕생하는 길 염불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공덕이 있는가?	운주사	도경,선도/이태원
3	반야심경 무슨 말을 하고 있나 : 산스크리트어본과 8종의 한역본	알아차림	관정
4	반야심경 정해 : 반야심경의 의미 왜곡을 드러내고 원래 뜻을 밝힌다	알아차림	관정
5	운명을 바꾸는 법(정공법사요법사훈강설)	불광출판부	정공 법사/이기화
6	중관학 특강 : 색즉시공의 논리	오타쿠	김성철
7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도서출판나란다	종카파

불교총지종 후원업체
(주)동원글로벌

Bene

배내인 물티슈

배내인이란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 입히는
배 냇저고리의 의미 처럼 부모 사랑을 뜻 합니다

구입방법:쇼핑몰 benein.com /



키카오 배내인 추가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리점,유통상담환영 /라벨 인쇄 판촉용 상담
대량 구매 상담 T.070-7596-2401



엠보싱 물티슈 100매입

엠보싱 적당한두께



베이직 물티슈 100매입

가성비갑 사무실용으로 최고



휴대용 손세정물티슈 30매입

알코올함유

‘꽃할매 꽃할배 효잔치’ 3년 만에 재개

포항 수인사, 어르신 초대 점심공양 흥겨운 시간 마련



포항 수인사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꽃할매 꽃할배 효잔치’를 3년만에 다시 열었다. 수인사 교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중앙동 거주 어르신들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공양하고, 각설이 품바 공연팀을 초청해 흥겨운 시간을 마련했다.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이웃 어르신들을 위해 50개 도시락을 따로 준비해 수인회와 지역 자원봉사들이 직접 배달에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포항 북구청(구청장: 나정기)에서 음료와 과일을 후원했으며, 수인회에서 수건과 EM생활환경실천회에서 em발효액을 기념품으로 회사했다.

수인회 황갑선 회장은 “코로나로 지쳐있던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봉사에 대한 의지가 더 생긴다.”고 말했다.

이승현 중앙동장은 “우리 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 주민의 40% 이상으로 4천5백 명 가량 되는데 오늘 잔치는 지역사회에 큰 활력을 줄 뿐 아니라 함께 나누는 큰 즐거움을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법상 정사는 “효잔치는 수인사가 자리만 만들었고, 통리원을 비롯한 종단 내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한마음 자비회사로 이루어졌다”며 “동참해주신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도움주신 분 △통리원 △서울경인교구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부산경남지회 △대구경북지회 △개천사 △국광사 △범함사 △성화사 △수계사 △정각사 △건화사 윤복자 회장, 김경연 교도 △선림사 이성우 교도 △자석사 이지은 회장 △정각사 이상록 교도 △포항북구 라정기 청장 △중앙동 이승현 동장

포항=박재원 기자

총/지/문/답 ⑰

십선성취 십선회향

종조 원정 대성사는 살생, 투도, 사음 등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하는 십악참회 계송을 참회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바라밀 수행으로 전환하여, 열 가지 공덕을 성취하고 회향하는 십선회향 계송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십선회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생중죄 지심참회 자비공덕 금일성취
투도중죄 지심참회 이행공덕 금일성취
사음중죄 지심참회 정령공덕 금일성취
망어중죄 지심참회 정어공덕 금일성취
기어중죄 지심참회 실어공덕 금일성취
양설중죄 지심참회 화합공덕 금일성취
악구중죄 지심참회 애어공덕 금일성취
탐심중죄 지심참회 보시공덕 금일성취
진심중죄 지심참회 환희공덕 금일성취
치심중죄 지심참회 지혜공덕 금일성취

고맙습니다

수인사 독거노인 도시락 후원

단음사, 성화사, 자석사 신정회, 정각사 자비회, 안성정사, 자석사 이지는 회장, 무명 씨

총지스케치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인-옴출야호사로서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원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해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224-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교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백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림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대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세상의 빛으로 다시 오소서!

한국밀교의 선각자이며 종단의 큰 스승이신 효강 대종사님의 왕생성불을 서원합니다.

종령 법공 대종사

통리원장 우인 정사 / 중앙총의회의장 법상인 전수

본산	서울경인교구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충청전라교구
총무부장 록경	관성사 주교 우인	관음사 주교 정인화	건화사 주교 도관	만보사 주교 유가해
재무부장 승원	밀인사 주교 덕광	단향사 주교 지홍	개천사 주교 인덕심	법황사 주교 인선
종무원 일동	법천사 주교 화령	덕화사 주교 법상인	국광사 주교 혜안정	중원사 주교 정정심
중앙총의회	벽룡사 주교 승원	밀행사 주교 행원심	단음사 주교 남혜	혜정사 주교 진일심
사감원	시법사 주교 해광	법성사 주교 법선	선립사 주교 법상	흥국사 인선 정사
원의원	실지사 주교 서강	삼밀사 주교 묘홍	수계사 주교 수현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지인사 주교 법우	성화사 주교 금강륜	수인사 주교 법상	
	총지사 주교 록경	실보사 주교 서령	승천사 주교 지선행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운천사 주교 정원심	제석사 주교 원만원	
법장원		일상사 주교 수행월		
중앙교육원		자석사 주교 도우		
밀교연구소		정각사 주교 법일		
학교법인관음학사 동해중학교		화음사 주교 원당		
		동해사 주교 법선		